한국불교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된다

국가유산청 3월 21일 지정 예고
불교사상 기초 조리한 채식 특징
"현재도 사찰서 전승" 높이 평가
조계종 "한식 발전에 기여" 환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한국불교만의 생명존중사상이 담긴 식문화인 '사찰음식'이 신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불교 생명사상을 기초한 음식인 '사찰음식'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스님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승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목은시고(牧隱詩藁)〉와 같은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묵재일기(默齋日記)〉 〈산중일기(山中日記)〉의 기록을 통해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불교의 불살생 계율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면서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조리 방식과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성을 반영하는 등 타 국가의 사찰음식과 차별화된다"고 높게 평가했다.

다만,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스님을 중심으로 사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예고에 조계종 문화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업단장 만당 스님 명의의 환영 논평을 통해 "'사찰음식'은 생명 존중과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며, 생명존중과 소욕지족(少慾之足)을 지향함으로써 물질적 풍요와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음식문화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또한 '사찰음식'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진우 스님 "불교 바로 알고 전법해야 불교 위기 극복"

'포교·신도단체장 워크숍' 법문
"분별 업 소멸하면 삶이 평안"
각 단체 주요사업 · 로드맵 공유


조계종 포교 · 신도단체장 및 임원 워크숍'에서 각 단체는 주요사업 및 로드맵을 공유했다.

"괴로움과 즐거움, 행복과 불행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행복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불교를 전해야 한국불교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3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도 조계종 포교·신도단체장 및 임원 워크숍'에서 탈종교화, 불자 감소 등 한국불교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사람들은 행복해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착각하지만, 행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괴로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진우 스님은 "이러한 작용을 '분별' 또는 '업'이라고 한다. 이 분별의 업식을 소멸해야만 인과의 윤회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별 업식이 있는 한 좋고 싫음은 계속되고, 육도윤회도 찰나마다 반복된다"며 "이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스스로 잘 이해해야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우리가 바른 수행과 가르침을 통해 포교에 힘쓴다면, 불자들이 늘어나고, 사회도 더욱 평안해질 것"이라며 "불교를 한국 사회의 정신적 기반으로 굳건해지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의 특강에 이어 포교·신도단체별로 주요사업 및 로드맵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체육인불자연합회, 경제인불자연합회, 조계종산악회, 서울교통공사법우회, 불교차인중앙회, 예비역장성불자회,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불교상담개발원, 전국여성불자회, 파라미타, 동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좋은벗 풍경소리, 불교스카우트연맹, 교법사단 순으로 올해 핵심사업을 발표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선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4월 1일 시행을 앞둔 총무원·교육원·포교원 일원화와 관련해 종책기조와 조직 변화,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종단은 포교를 제1과제로 삼아, 포교부 산하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김내영 기자

돈관 스님 "자기 자리서 주인공돼라"

동국대, 정각원서 개강법회
'동국바라밀'을 주제로 법문



"동국바라밀의 답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 때 동국대의 건학이념, 이상세계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3월 25일 교내 정각원에서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증명법사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법상에 올랐으며, 스님은 '동국바라밀'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사진〉

이날 돈관 스님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에게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록을 인용한 돈관 스님은 "임제 선사의 말씀처럼 자기 자리에서 주인공이 돼야 한다. 스스로 주인공이 됐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 설했다.

이어 스님은 "해봉당 자승 대종사께서는 2021년 건학위원회를 발족하며 '동국발전 불교중흥'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를 보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동국의 자랑이고, 부처님"이라며 "법회에 온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 그리고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봄을 맞는 동국인들은 불성(佛性)의 씨앗을 자기 마음 속에 꼭 뿌렸으면 한다"며 "학교 오면 합장하는 버릇을 들이고, 팔정도 광장 부처님께 합장 삼배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행동을 지속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된다. 동국대에서 훌륭한 불성을 가진 불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2주년…'전법' 재다짐

사)상월결사, 3월 23일 기념법회
'문화법회' 대학생 전법 사업 공유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2주년을 맞아 사부대중들이 인도순례의 의미와 감동을 되새기는 한편 부처님 법 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3월 23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및 전법선언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사단법인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대학전법을 위한 동아리 지원금 전달, 구역 문화법회 등 자승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는 사단법인 상월결사의 활동을 안내하면서 "많은 이들이 동참해 상월결사가 이 시대 불교정신, 전법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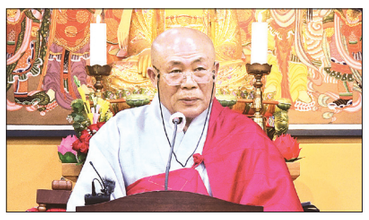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2023년 2월 9일 인도순례를 떠나는 순간을 회상했다. 이어 "우리가 원력을 세워 한국불교 중흥, 대학생 불교 활성화를 위해 담금질 과정을 잘 거쳐야 한다"면서 "상월결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원력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5월 10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문화법회를 봉행한다. 문화법회는 5~6월 대구와 구미, 논산, 부산 등에서 이어진다. 11월 11일에는 위례 상월선원에서 정진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상월결사는 자승 대종사의 마지막 유훈인 대학생 청년 전법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호법원장에 구산 스님 선출

3월 26일 중앙종회 임시회서
선관위원장에 정운 스님 임명



태고종 제5대 호법원장에 구산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3월 2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제153회 임시회를 열고 호법원장 선출의 건 등을 다뤘다.

호법원장에는 제4대 호법원장 혜일 스님과 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이 후보로 출마해 경선으로 진행됐다.

재적의원 59명 중 5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결과 기호 1번 혜일 스님이 15표, 기호 2번 구산 스님 41표를 받아 구산 스님이 제5대 호법원장으로 선출됐다.

선출 직후 구산 스님은 "종단 사법질서 확립과 종도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호법원을 만들겠다"면서 "앞으로 격려와 쓴소리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구산 스님은 총무원 경호부장과 호법위원, 규정부장, 충북교구종무원 제천분원장, 제12·13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신임 호법원장의 공식임기는 4월 17일부터지만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종회는 선출시점인 3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의를 모았다.

이어 중앙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의 건을 통해 법화사 주지 정운 스님의 임명안을 가결했다.

신중일 기자

"염불로 명상… 최고의 명상지도자 되길"

태고종, 명상지도자 1 · 2급 입학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불교 명상을 체계적으로 지도·교육할 수 있는 불교명상지도자 1·2급 양성에 나섰다.

태고종은 3월 21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불교명상지도자 1·2급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입학식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재홍 스님, 총무부장 도성 스님, 정준영 교수, 김재권 교수와 1·2급 과정 입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번 불교명상지도자 1·2급 과정에는 1급 16명, 2급 12명 총 32명이 입학했으며, 이들은 △유식심리학 △마음수행과 심리학 △명상과 심리학 등 이론 교육과 △사마타와 위빠사나 △선명상과 마음공부 △요가와 이완명사 △유식과 호흡명상 등 20주간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오늘 입학생들은 마음이 아픈 중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명상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자연과 사찰 공존" 강조

국립공원의날 5주년 기념식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의날 5주년을 맞아 자연과 전통문화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부는 3월 24일 서울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사에서 '제5회 국립공원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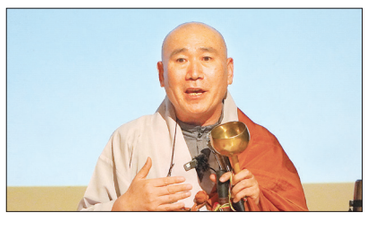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2023년 팔공산까지 23곳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국립공원 면적은 우리 국토의 6.8%에 달한다. 이에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0년, 3월 3일을 법정 기념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한국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을 가꾸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하고 계승해 왔다"며 "1967년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고 자연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지키며 상생하는 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자연보호와 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가치를 전달할 방법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주 구룡사=임은호 기자

마가 스님 "행동하는 일류로 거듭나길"

'나는 내 인생 주인공' 주제 강의



"일류는 행동하고, 이류는 말 만 하고, 삼류는 생각만 합니다. 행동하는 일류로써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사단법인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사진〉이 3월 24일 서울 성균관대 경영관 소극장에서 성균관대 불교학생회 '성불회' 주관으로 열린 8개 대학 연합법회에 참석해 토크콘서트 강사로 나섰다. 법회에는 성균관대,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한국외국어대 불교동아리 회원과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마가 스님은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실천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